

“병력·부대·전력구조 결합한 최적의 군구조 탐색”

제1회 육군 군구조 발전 콘퍼런스
야전 초급간부·전문가 등 한자리
작전환경 대응 위한 발전방향 논의

육군이 군구조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안보 위협과 작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뎠다.

육군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1회 육군 군구조 발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국방부·합동참모본부·육군본부 주요 직위자와 야전 초급간부, 민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콘퍼런스에선 ‘전장을 주도하기 위한 육군 군구조 발전’을 주제로 △드론·대드론 활용전략 △미래 간부 인력구조와 급여 수준 △부사관 모집체계 개선 등 주요 현안 중심의 논의가 펼쳐졌다.

김 총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콘퍼런스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결합한 최적의 군구조를 탐색하는 집단지성의 장”이라며 “미래 군구조 설계는 구성원의 공감대, 기존



육군이 4일 개최한 ‘제1회 육군 군구조 발전 콘퍼런스’에서 김규하(맨 앞줄 가운데)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육군 제공

국방개혁의 교훈, 미래 지상군의 역할, 방위 충분성,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기조연설에서 권오성 육군협회장은 국방개혁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국방개혁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정책 소개 시간에는 이정현(대령) 육군본부 부대 기획과장이 육군의 군구조 발전방향과 정책과제를 설명했다. 행사장에는 주요 정책을 시각화한 인포그래픽과 첨단 장비 전시

도 마련돼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주제 발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교훈과 지상군의 역할 △인공지능(AI) 기반 드론 자율혁신 △대드론체계 발전 △미래 인력·보수정책 △부사관 모집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김용우 육군정책자문위원장은 “급변하는 전략환경 속 육군이 직면한 도전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도약적 변혁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11보병사단 김지호 대위는 “미래 육군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병력 구조 변화가 현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육군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도출한 의견을 분석해 향후 국방개혁 과제와 미래 군구조 설계에 반영하고, 매년 콘퍼런스를 열어 전문가·야전 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백상원 기자

혹한 맞서 실전능력 점검…원팀 정신으로 ‘뜨거운 마무리’

육군21사단 천봉여단, KCTC 훈련
미군 포함 장병 2700여 명 참가
모친상 슬픔 딛고…전역 연기하고…
끝까지 임무 완수한 장병들 ‘눈길’

육군21보병사단 천봉여단이 올해 마지막 과학화전투훈련을 마치며 부대의 실전적 임무 수행 능력을 점검했다. 특히 장병들은 훈련기간 혹한과도 맞서 싸우며 뜨거운 전우애를 나눴다.

여단은 4일 “강원 인제군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개한 KCTC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훈련에는 여단을 비롯해 지원·배속부대까지 총 2700여 명의 장병이 참가해 성과를 높였다. 미 스트라이커대대도 훈련에 동참해 한미 연합작전 수행력을 점검했다.

장병들은 영하를 밑도는 강추위를 뜨거



육군21보병사단 천봉여단 장병들이 KCTC 훈련 참가에 앞서 출정식을 하고 있다.

부대 제공

운 전우애로 극복했다. 마지막까지 전우들과 함께하기 위해 전역을 연기하고 훈련에 참가한 전자대대 홍성현 병장, 이목정대대 정예찬 병장이 대표적이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고동락한 가족과 같은 전우들을 두고 마음 편히 전역할 수 없었다”며 “군 복무 중 갈고닦은 전투기술과 노하우를 후임들에게 아낌없이 전수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랑대대 이하민 병장은 출정식 직전 모친상을 당했지만, 슬픔을 이겨 내고 자발적으로 훈련에 참가해 전 장병에게 귀감이 됐다. 그는 전우들과 함께하고자 청원휴가를 마친 뒤 곧바로 부대로 복귀했다. 이 병장은 “가장 힘든 순간이었지만 어머니께서도 책임감을 갖고 임무를 완수하는 모습을 자

랑스러워하실 것으로 생각했다”며 “전우들과 같이 훈련을 마칠 수 있어 오히려 더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고 전했다.

부대는 이번 KCTC 훈련에서 확인한 실전적 전투 능력과 뜨거운 전우애, 투철한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적의 어떠한 위협에도 즉각 대응하고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임무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이원준 기자

‘백골포병 최강부사관’ 고정훈 중사 영예

육군3사단 포병여단 경연대회
사전평가 거쳐 17명 도전장

육군3보병사단 포병여단은 지난 2·3일 이틀간 부대에서 ‘제2회 백골포병 최강부사관 선발 경연대회’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편제장비 운용력 숙달과 교관화 능력 구비를 통한 ‘부사관 정예화’를 목표로 마련된 경연대회에는 여단 예하 4개 대대에서 치열한 사전평가를 거쳐 선발된 부사관 17

명이 도전장을 냈다.

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통신장비 운용 △화생방장비 운용 △화력장비 운용 등 총 6개 과목, 10개 과제의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했다. 평가는 과제별 평가관이 전투력 측정 지침서에 따른 선발 평가표를 적용, 전술적 상황을 부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됐다.

치열한 경연 결과 화강포병대대 고정훈 중사가 백골포병 최강부사관으로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고 중사는 “여단 전투력

발휘의 중추, 그중에서도 선봉에 서게 돼 너무나 영광스럽다”며 “이번 영예를 받판 삼아 육군 최강부사관이 되는 그날까지 더욱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백골포병여단 손혁진 주임원사는 “올해 2회를 맞이한 최강부사관 선발 경연대회는 부사관단의 성장을 극대화하는 자리”라며 “단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여단 부사관단의 노하우 소통창구로 활용,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기는 창결 전투력 배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단은 앞으로도 매년 경연대회를 개최해 부사관들의 전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원준 기자



백골포병 최강부사관 선발 경연대회에 도전장을 낸 부사관이 화력장비 운용 능력을 평가받고 있다.

사진 제공=신우진 대위